

Chapter 13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d Answers

제 13 장 / 흔한 질문과 답

다음은 학회와 질의 응답한 내용으로 대답이 완벽한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1. 어떻게 2008년도에 국문학술지가 대거 SCIE에 등재되었나?

Thomson Reuters에서 특별히 지역 학술지 선발 정책을 폈다. 그 지역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또한 그런 내용이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을 선별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영향력지표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있고 고려한 것도 있다.

2. 국문 학술지의 결격사항을 보완하여 SCIE로의 등재를 위한 길은 없는가?

Thomson Reuters가 지역 학술지 등재 정책을 계속 펴지 않는 한은 국문학술지로 영향력지표를 올려서 등재시키기는 불가능하다.

3. SCIE 등재 안내에는 본문에 자국어를 사용하는 지역 학술지도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꼭 영문학술지여야 하는가?

2008년도에 특별히 정책을 편 것이다.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을 무한히 편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곳에서 이렇게 등재한 것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4. PMC 가면 SCIE 가는 것인가?

직접 상관이 없다. 단 영향력지표를 올리려면 PubMed 등재되어 전 세계에서 검색을 하여야 하는 데 PMC에 가면 PubMed에 올라간다. 물론 Medline 등재가 성공하면 제일 좋으나 최근 매우 장벽이 높다. 즉 영향력지표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정말 우리 학술지가 SCIE 갈 수 있을까?

세부 전문분야나 새로운 학문분야(niche)가 유리하다. 즉,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의료현장에서 이용을 하고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첨단기법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그 분야 의료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확신이 있다면 학술지도 따라간다. 그렇지 않고 전통적인 학문분야 학술지라면 영문으로 가서, PMC 등재시켜 PubMed 등재 후, 인용도를 높여 국제 학술지로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대하기로는 SCI의 65개 의학 분야 범주에서 한 범주에 한 종은 한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등재 가능할 것이다. 아직 해당 범주에 국내 발행 학술지가 없다면 최선을 다 하여야 하고, 혹 있다고 하여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도리밖에 없다.

6. SCIE 평가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면 SCIE 가는가?

나머지 format에 해당하는 것은 완벽하게 맞추고 나서 영향력지표가 0.5는 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1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Thomson Reuters에서 선정하는 편집인 마 음이라서 이것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는 도리밖에 없다.

7. 국문으로도 주위 여러 학회는 SCIE로 갔는데 꼭 영문이어야 가능한가?

국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국문으로 인용도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SCIE에 등재하더라도 이후 영향력지표를 자기인용으로만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 국문학술지를 등재시킬지 말지는 완전히 Thomson Reuters의 심사위원의 판단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곳 평가지표에 맞게 작업을 하여 놓고 기다린다면 최근 지역 학술지 우대 정책을 펴고 있어서 선정될 확률이 과거 보다 높다. 즉, 평가지표에 맞게 학술지를 운영하면서 영향력지표를 올리는 것이 이의 다른 준비 방법이 없다.

8. 국제상업회사와 같이 발행하면 SCIE 등재가 더 쉬운가?

학술지 경험이 풍부한 상업회사가 지원을 한다면 대개 영문으로 발행할 것이고, 학술지의 style과 format을 단번에 국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 또한 자체 유통망을 통하여 국제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영향력지표를 올려 SCIE 등재를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무료로 나서서 하겠다는 상업회사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경비가 든다. 그런데 그 경비로 굳이 상업회사로 간다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즉, PMC 등재가 쉽지 않고 혹 개개 논문을 PMC에 올린다고 하면 논문 당 발행비를 요청할 것이다. 이제 의학 학술지 정보시장에서 PMC가 고급의 정보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미국 NIH 지원을 받은 논문 88,000여 편이 공공접근 정책에 따라 매년 PMC에 실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술지도 급선무는 영어로 전문을 발행하여 PMC에 등재시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PubMed에 자동으로 등재되기 때문이다. 이 PubMed에 들어가야 다른 국제학술지와 동등하게 경쟁이 가능하다. 이후 의학정보시장에서 논문의 내용만 좋다면 경쟁할 수 있다. 이미 국내 학술지도 style과 format을 국제 수준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편집인이 노력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학회에서 논의하고 잘 판단하고 학회 사정에 맞추어 결정하면 충분하다. 모든 것은 학회가 책임지고 하면 된다.

9. SCI와 SCIE의 차이는?

우리나라 일부 대학에서는 승진, 포상, 연봉 책정 등에 활용하는 업적 평가에서 SCI와 SCIE를 차별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SCIE 학술지보다 SCI 학술지가 더 질 높은 학술지라고 여기는 학교 책임자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SCI는 과거부터 있던 학술지의 집단이고 CD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SCI만 검색은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학술지는 더 이상 CD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수가 늘어나서 이후 웹에서만 서비스하고 CD에 넣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SCIE 학술지는 SCI 학술지를 모두 포함한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중요한 세상에서 CD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도서관이 국내에는 전무하고, 누구도 지금은 CD를 찾지 않는다. 과거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시대의 산물로 아프리카 일부 국가처럼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곳에 보급하고 있다. 물론 아직 SCI 학술지가 SCIE 학술지보다 일반적으로 인용도 지표가 높은 것은 현실이지만 최근에는 SCIE 학술지에서 영향력지표가 100이상인 것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서 학술지 창간이 잇따르고 있어, SCI 학술지나, SCIE 학술지나로 학술지의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학술지가 해당하는 범주(category) 내에서 영향력지표 순위가 상위 몇 % 나를 따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학술지 평가 방법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개개 논문의 질이 더 중요하며, 어느 학술지에 실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앞으로는 h-Index와 같이 개개 연구자나, 기관 또는 학술지의 피인용횟수의 빈도가 중요해 질 것이다.

10. SCIE나 PubMed 학술지가 아니면 결국 우리나라 학술지는 사라지는 운명에 처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일부 독점으로 투고 받을 수 있는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지금보다 최소 투고 원고 수는 줄 것이고 발행 호 수도 감소할 것이다. 현실은 냉혹하고 냉정하다. 우리나라 연구자의 의학 연구는 국제 수준으로 점점 높아지는데 학술지가 국제 수준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학술지가 어떻게 될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PubMed에 우리나라 학자가 첫 저자로 게재한 논문 수는 매년 평균 15% 이상 증가하여 2004년도 7,745편에 비하면 2008년도 14,572편으로 5년

만에 무려 88.1%의 증가가 있었다. 반면 지금도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 수는 제자리로 2004년도 9,281편보다 2008년도 8,991편으로 KoreaMed 논문 수는 0.5% 감소하였고, 학술지 중수가 2004년도에 105종에서 2008년도 142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학술지당 논문 수는 2004년도 86.1편에서 63.3편으로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학술지당 논문 수는 5년 후면 40편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런 이유는 2005년도 이후 KoreaMed 등재 학술지가 세부 전문학술지가 많아서 논문 수가 적은 학술지인 까닭도 있으나 총 논문 수가 준 것과 학술지당 논문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PubMed에 국내 학자의 논문 수가 증가한 것은 생물학이나 약학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장도 한 몫을 하였으나, 전체적인 규모로는 보건의로 분야가 대다수이다. 또한 국내 학자가 외국 학자와 공저로 발표하면서 첫 저자가 아닌 경우는 PubMed에서 검색하지 못하므로 실제 공저자까지 치면 최소 1.5배에서 2배의 PubMed 논문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최소 21,850편의 논문을 PubMed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고 봐야 하므로, 국내 발표 논문의 두 배가 국제학술지에 실린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11. 기존 학회지를 영어로 바꾸지 않으면 SCIE 등재는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영향력지표를 고려한다면 영어로 발행하여야 장기적으로 유리하고 꼭 SCIE만 아니더라도 우리 내용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Thomson Reuters에서도 자연과학 학술지의 국제표준어는 영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전 세계 인류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2008년도에 Thomson Reuters에서 특별히 지역 학술지를 받는 정책을 폈지만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나 이런 정책을 지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2008년도에 등재된 국내 대부분의 학술지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향력지표가 0.1 미만이었다.

12. 영어로 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학회에 주장하였지만 전문의 시합을 위한 의무등재 1편 때문에 오히려 커다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전공의 대상 논문 작성법에 대한 훈련과정을 매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동기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당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 1년차 또는 2년차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좋을 것이다. 전공의가 논문 한 편 쓸 수 없는 병원은 사실 교육병원으로서 탈락감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국문으로 다 받는 수준이면 영문이라고 하여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단지 영문으로 쓴다는 정도의 차이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정 영문으로 못쓰면 국문 논문 받아 학회에서 번역을 하고 다시 영문교열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된다. 전공의가 국문은 쓰고 영문은 못 쓰는 것은 사회에서 알면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재들만 오는 의대 졸업생이 영문 작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고교에서 상위 1% 학생이 의대 와서 영문 작성 못하도록 교육시켜 병원에 보냈다면 우리 의학 교육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학회의 전공의 수련 과정의 질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학회에서 일정기간 두고 잘 홍보하고 교육훈련도 시행하여 동기 부여를 하면서 진행하면 전공의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 영문 논문 작성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것이다. 정 어려우면 국문으로 내고 게재 결정되면 학회에서 번역하여 주고 그 경비를 투고자가 내는 것도 한 가지 해결책이다. 경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

13. 영문으로 가면 투고가 적어질 터인데 해결책은?

그래도 영문으로 가서 PMC에 등재시켜 국제적인 인용을 받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논문 수가 적더라도 개방 학술지로 가서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차피 국내 의학 학술지 가운데 대한의학회 평의원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이기에 전문의 고시의 필수 요건으로 논문 투고 받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학술지가 아닌 한 대개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투고 논문 수가 점점 줄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자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이제 망설임 없이 영문 학술지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다. 또한 학회 회원이 최소 일 년에 우리 학술지에 실는 논문 수만큼 SCIE 학술지에 실으면서 인용을 하여야 한다. 일 년에 40편 발간하면 그해에 최소 40편을 SCIE 학술지에 논문

실을 수 있는 능력이 학회 회원에게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회 외 전 세계 연구자가 전체 인용의 반 이상 인용하는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 결국 학회원의 논문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14. 국문으로 받아서 게재 확정되면 번역하는 것은?

물론 초기에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투고 수 확보에 좋다. 여러 학술지에서 이런 정책을 펴서 일단 게재 확정되면 저자 또는 학회 부담으로 논문 번역하고 영문 교열 후 신는다.

15. 학술지 제호나 표지의 제호를 국문에서 영문으로 변경하였다. 어떤 후속 작업이 필요한가?

제호를 영문으로 새로 바꾸는 경우 또는 학술지 제호를 국문에서 영문으로 바꾸는 경우 반드시 ISSN을 바꾸어야 한다. pISSN, eISSN 모두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Medline 학술지인 경우 새 제호로 나오지 않고 과거 제호로 나오고 KoreaMed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 두 군데에서 모두 ISSN을 데이터베이스 primary key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흔히 벌어지는 실수이다. 제호 변경의 정의는 첫 5 단어에서 변경이 있을 때 제호 변경으로 여기는 데 국문으로 제호를 표기하다 영문으로 표기한다면 과거 영문이 그대로 표기된다고 하여도 이것은 당연히 제호 변경이므로 새로 ISSN을 받아야 한다.

16. 영문 제호에 대하여 다른 상업 학술지 발행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우리 학회지 제호를 Korean Journal of OOO-ology에서 Journal of OOO-ology로 변경한다고 안내를 하였는데, OOO-ology를 발행하는 곳에서 자기네 학술지의 명성을 얻으려고 제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대처는?

응대할 필요도 없는 터무니없는 반응이다. 학술지명은 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파리의 국제 ISSN 센터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하는 것으로 선취권이 인정되고 만약 기존

의 학술지명이 있으면 변경할 것을 권하여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우리나라 학술지 편집인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답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을 한다면 국제 ISSN 센터의 관례를 언급하면 충분하다.

17. 학술지 국문 공식 명칭이 대한OO과학회지인데 국문제호와 영문 제호가 꼭 그대로 번역하여 일치하여야 하는가?

영문이름이 꼭 한글이름의 영문 번역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국문 제호와 영문 제호는 별개이고 국문제호를 표지에 기술하였으면 그 학술지는 국문제호가 제호이지 영문제호는 공식 제호가 아니기 때문이다.

18. Medline과 PubMed는 무슨 차이인가?

PubMed는 웹서브스로 Medline을 포함하여 PMC의 초록과 그 외 Old Medline 등 추가 자료가 더 있다. Medline은 까다로운 심사 받아서 등재되는 것이고 PMC는 PMC XML 기술력이 중요하므로 결국 경비 지출이 가능하나가 관건이다. 또한 Medline 등재되면 MeSH를 입력하므로 검색에서 노출되는 데 더 유리하다.

19. 상업 출판사와 같이 발행하여도 PMC에 올릴 수 있는가?

어느 상업회사는 PMC 등재 학술지를 발행한다. 이 경우 embargo 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아마도 경비에서 차등이 날 것이다. 출판 경비를 모두 학회에서 지불한다면 상업회사에서 발행하여도 PMC에 등재시킬 수 있다고 여긴다.

20. PMC에 등재되면 외국인 투고자가 느는가?

그렇다. 영문으로 투고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이메일로 투고를 받으면 늘고 학술지가 SCIE 학술지이거나 Medline 학술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21. PMC, DOI 같은 새로운 정보 기술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의협협 사무실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한다(<http://kamje.kr>).

22. Open access 학술지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나?

PMC 등재할 때 open access로 발행하는 지를 문의하므로 학회에 따라서는 개방잡지로 가고 싶은 경우가 있다. 무료 잡지와 차이는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따른다고 학술지에 기술하여야 하고 앞으로 학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을 단순히 인용처를 밝히고 인용하면 되기에 연구나 교육에 편안하게 쓰일 수 있다. 저작권이 학회에 있어도 Creative Commons License에 따른다고 추가로 기술할 수 있다. Open Access Journal에서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보면 방법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방학술지로 가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사항이므로 발행 학회나 기관에서 논의하여 정하면 된다. 대개는 무료 잡지이므로 개방잡지(개방학술지)로 바꾼다고 하여서 학회임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

23. DOI 부여하면 인용도가 늘어나는가?

당연히 늘어난다. 논문을 읽다 참고문헌 중에 관심 있는 우리 학술지 논문이 있는 경우, 클릭 한번으로 학술지 원문에 연결되므로 인용 받을 때 경쟁력이 있다. DOI는 개개 논문 고유번호이므로 학술지에 pISSN, eISSN 부여하듯이 이제는 모든 학술 논문의 필수이다. 없으면 참고문헌을 통한 학술지 국제 유통을 포기한 학술지임을 선언하는 것이므로, DOI를 부여하지 않는 학술지에서는 당장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경비가 든다고 망설임 필요가 전혀 없다. 저자 부담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학술지가 pISSN조차 없는 것이 많았다. 지금은 그런 학술지가 하나도 없다. 앞으로 DOI도 그렇게 필수항목이 될 것이다.

24. 앞으로 DOI가 없는 경우 학술지로 치지 않는가?

학술지의 정의가 DOI가 있고 없기로 결정하는 아니므로 그렇지는 않으나 적어도 국제 수준 학술지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DOI 부여 여부는 앞으로 정부 산하 단체의 학술지 지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지표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 Open access/Free access 잡지인지 여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학술지 형식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DOI를 개개 논문마다 부여하는 것이 이미 국제 학술지 시장에서 표준이 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제 표준을 강조하는 곳에서 학술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인터넷왕국에서 이런 학술 논문의 네트워크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조금만 생각하면 DOI 붙이는 것이 학술지 생존에 얼마나 중요하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나라이므로 DOI의 의미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5. 왜 종이학술지 이외 누리집을 국제수준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보를 찾아서 참고문헌에 쓰는 지 생각하여 보면 간단하다. 이미 종이학술지로 연구자가 정보를 찾지 않는다. 색인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서 거기서 전문을 찾아 들어간다. 그렇다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국제 수준의 누리집을 만들고, 개개 논문마다 DOI를 붙여야 할 것이다. 자신이 다른 학술지를 찾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학술지도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영문으로 꾸며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연구자는 도서관에 가서 종이학술지를 보지 않는다. 웹에 내용이 없으면 그 학술지는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학술지 논문 전문을 공개하여야 인용도가 늘 것이다. 과연 연구자가 웹에 없는 내용을 인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가서 학술지를 직접 찾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한다면 누리집이 없는 학술지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학술지는 인터넷왕국이 무색하게 아직도 누리집이 별도의 도메인으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곳이 많고 따라서 eISSN도 없는 학술지가 eISSN이 있는 것보다 더 많다.

26. 외국인을 편집위원에 넣는 것은 필수인가?

가능하다면 위원에 우리나라 사람은 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채우고 심사의뢰도 하고 종설도 받는 것이 좋다. 최소 3대륙 아시아, 유럽, 북미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낫다.

27. 초빙한 외국인 편집위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지 물었다. 역할을 어떻게 기술할까?

국내 편집위원과 역할은 같으나 현실은 외국인을 편집위원회할 때 참석시킬 수는 없기에 대개 국내 편집위원이 모든 편집 방침을 정한다. 외국인 편집위원에게 대개 논문 심사, 종설 투고, 논문에 대한 평 등을 부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을 맡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대개는 논문 심사이다. 학술지 편집위원은 명예이므로 대개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지 외국인에 대하여 특별히 심사 경비 지불도 하지 않는다. 국제 학술지에서도 심사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학회에 따라 국제 학회에 외국인 편집위원이 참석할 때 모임을 한번 갖고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는 수준으로 우대를 하기도 한다. 가끔 간단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8. 학술지 제호에 Korean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좋은가 없는 것이 좋은가?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 최근에 영문 학술지로 전환하거나 새로 만든 곳 상당수에서 Koeran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일반명으로만 정하고 있다. 아직 국제 학술지 시장에서 Korean이라는 브랜드(상호명)가 최상이 아님은 현실이다. 아직은 American 정도만이 최상이라고 여긴다. 그 외 나라 예를 들면 British, Japanese, German, French 등도 최상이라고 여기기 쉽지 않다. 잡지명을 바꾸는 것은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 과거에 쓰던 Korean이 붙은 호를 total citation에서 그대로 활용할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 제호를 바꾸면 완전히 새 학술지이기 때문이다. 과거 인용받은 것이 많지 않아서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다면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지역학술지 선정 정책에서 Korean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무슨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Korean이라는 브랜드가 지금의 American이라는 브랜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참 알기 어렵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위로 올

라간다는 보고서도 있듯이 앞으로 최고 국가가 되면 이 Korean 브랜드가 빛을 더 발
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추세는 특히 상업출판사 발행 학술지에서는 국
가명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한 국가 중심이 아닌 전 세계의 학문 시장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 영문학술지를 창간하는 경우라면 굳이 Korean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하고 대개의 경우는 다 Korean 없이 작명한다. 기
존에 Korean이 들어있는 제호를 변경할지 여부는 학회에서 결국 회원들이 결정할 문
제이다. 기존 제호로 발간한 기사를 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가고 싶으면 그대로 유
지하고, 또한 Korean이라는 지역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경우 역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Korean이 붙었다고 하여서 다른 나라에서 투고를 적게 받는 것은 아니다. 중
요한 것은 Korean이 아니라 결국 얼마나 인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원고
를 투고 받을 수 있느냐이다.

29. Supplement에 실린 abstract도 논문 수에 들어가는지?

한국연구재단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의평협도 기사로 처리하지 않고 PubMed에서
도 기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Thomson Reuters에서 정책을 바
꾸어 학술지 Supplement의 MEETING ABSTRACT 및 PROCEEDINGS PAPER
를 별개의 기사로 처리하여 Web of Science에서 검색이 된다. 그리고 참고문헌도 나
열하고 citation 여부도 기록이 나온다. 즉 이런 내용이 과거와 다르게 별개의 기사가 되
었으므로 학회 초록집을 Supplement로 구성하여 색인데이터베이스 기관에 보낼 것인
지 말 것인지 학회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 초록이나 proceedings가 인용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보내나 아니면 보내지 않거나 별호로 인쇄하지 않고 아예 별
도로 인쇄한다.

30. 원고편집인을 어떻게 구하나?

국내에는 아직 원고편집인이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지도 않고 그런 자격증도 발
행하는 곳은 없다. 학회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전일제/ 부분일제로 채용하기도
하며, 생명과학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채용하기도 한다. 또는 free lancer를 구하

기도 하고, 구하기 어려우면 원고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맡기기도 한다. 이 원고 편집인 수요는 매우 많은데 훈련받은 인력은 많지 않다. 의편집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약 30명 정도 대상으로 계속 원고편집인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그 정보는 의편집의 누리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1. 사설을 꼭 써야 하는가?

우리나라 학술지가 국제 수준의 유명 학술지에 비하여 형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설(editorial)이다. 사설은 그 내용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In this issue라는 형태로 그 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질 내용을 간단히 기술한다. 그리고 내용 중에 논란이 되거나 화제가 되는 것을 집중하여 다룬다. 예를 들면 Nature나 Science 등의 학술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사설에서 설명하고 자세하게 보기 위하여 해당 논문을 더 보도록 유도한다. 어느 분야의 매우 새로운 내용이거나 흥미를 일으키는 새 주제인 경우 주로 심는다. 두 번째 범주는 그 호에 실린 내용과는 무관한 그 학회 또는 어느 나라의 의학계에 화제가 되는 주제, 그 분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변화, 정책 변화 등을 다룬다. 사설은 대개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이 쓰지만 저자를 초빙하여 쓸 수 있다. 또는 기관이름으로 쓸 수도 있다. 사설을 쓰는 것은 전임편집인이 전무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편집인이 모두 쓸 수 없기에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편집위원이 돌아가면서 쓰기도 한다. 어느 호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쓰는 작업도 모든 논문을 다 읽어 보고 써야 하므로 역시 편집위원이 같이 참여하여 쓰면 편집인의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능통하고 최신의 지견을 잘 알고 있어야 하므로 큰 영광이기도 하다. 또한 사설은 발행처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므로 의료 현장이나 학문 세계 또는 의료 소비자인 일반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결국 사설의 수준이 그 학술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사설에서 독창성 있는 원저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잘 기술할 수 있어야 해당 논문을 독자가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웹에서 주제어 검색으로 논문을 찾기에 사설의 영향이 덜 할 수 있으나 사설에서도 노출되면 그 논문은 이종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검색에서 더 유리하다.

사실 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우선 써보고 편집위원이 같이 보고 평을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되먹이기를 받고, 다른 국제 학술지의 사실을 어떻게 쓰고 또한 어떤 내용이 흥미로운지를 잘 파악하면 사실 쓰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분야의 학문 세계에서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그 호에서도 잘 선정하여야 하고, 또한 국제 학문 세계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2. 전문의 시험 자격으로 학회에 제1저자로 전공의가 논문 한 편을 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어 논문 심사에서 게재 불가 판정이 어려운 데 어떻게 하나?

이 문제는 규정에 대한 것이라서 우선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규정이 복지 부에서 허락하여야 변경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의학회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앞으로 규정을 두고만 하여도 인정한다거나 다른 유사 분야 학술지 게재도 인정한다거나 국제 학술지를 인정한다거나 하는 등 게재 거부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야 전문가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33. 현재 Google에서 논문 검색을 하다보면 학회지 논문이 검색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 대부분이 돈을 받고 파는 유료정보로 나온다. 이 사이트가 정식으로 학회와 제휴해서 논문을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할까?

명백한 저작권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이므로, 이 사이트를 증거로 확보하고 학회 변호사 통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절차가 번거로우면 최소 검찰에 고발을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한다.

34. 우리는 상회회사와 같이 작업하기로 하였다. 어떤 점을 계약조건에서 언

급하여야 하는가?

계약 조건을 잘 판단하여 학회가 학술지 저작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작업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것은 상업회사에서 PMC에 등재시키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발행 1년 후 PMC에 올리는 embargo 기간을 두는 것이다. 어떤 계약을 하든지 책임은 학회가 지고 하는 것이므로 미래를 바라보고 신중히 접근하여야 한다. 계약도 온라인 내용만 다루는 경우도 있고 종이 학술지까지 다루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조건을 잘 판단하여야 한다.

35. 게재 논문 수가 일 년에 20편 이하인데 어떻게 유지하여 국제 학술지로 키울까?

과감하게 학술지를 인접 분야와 통폐합한다. 그리고 통폐합하면서 영문으로 발행한다. 통폐합을 하기 어려우면 종이 없는 웹학술지로 발행하여 간기 맞추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일 년에 20편 이하 발행하는 경우 간기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웹학술지로 나가면 게재 확정하는 대로 바로 바로 웹에 올리면 된다. 그런데 웹학술지로 간다면 당연히 영문으로 하고, 개방학술지로 PMC XML로 만들어 PMC에 등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 이런 웹학술지는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이다.

36. 학회가 돈이 없다. 경비를 어떻게 하나?

지금 학술지를 종이로 보는 사람과 웹으로 보는 사람이 몇 대 몇이고 나는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면 종이 학술지를 버리고 개방 웹학술지(open access web journal)로 가는 것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 경우 간기 걱정도 염려 없다. 경비도 반으로 준다. 기본 경비는 다음과 같다.

- 1) PMC XML 작업비
- 2) Manuscript editing

- 3) 영문 번역 및 교열
- 4) PDF 생성
- 5) 심사비
- 6) 학회 누리집 구축비
- 7) 온라인투고 시스템 구축비

이 정도인데 1-4는 당연히 open access라면 투고자가 부담하고, 5는 이제 국제관례에 맞게 없애고, 6,7 정도만 학회가 부담하여 하면 된다. 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행 학술지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및 한국역학회 발행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이다. 내용이 중요하지 종이냐 웹이냐는 전달 방법이므로 상관이 없고 요즘은 후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웹으로 출판하고 일년에 한번 연말에 PDF 파일을 모아서 종이로 찍어 종이로 꼭 보기 원하는 분에게만 보내주면 충분하다. 종이학술지를 대개 받아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종이 학술지를 받아도 꽃아 돌 공간이 없어서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37. 종이 학술지를 찍어야 광고가 오는 데 종이 잡지를 없애도 되는가?

상업회사에서 하는 학회 지원을 광고로 받아야 한다면 종이로 찍어도 좋은데 그 경비의 효율을 생각하여야 한다. 광고료로 종이학술지 발행비 이상을 받으면 좋으나 그 이하라면 과감히 종이는 버리고 웹으로 나가는 것이 답이다.

38. 우리 학회는 연구 인력도 풍부하고, 투고 논문 수도 충분하고 경제력도 갖추어 얼마든지 학술지에 투자할 수 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단기 목표를 style 및 format 국제 수준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정하고 모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빠른 시일 안에 모두 갖출 수 있다.

- 1) 편집인 임기 최소 10년 보장

- 2) 숙련된 manuscript editor 고용 지속하거나 전문회사에 의뢰
- 3) 학술지 구성 요소 및 투고규정 정비: Aims and scope에서 uniqueness 기술
- 4) 국내 최고수준의 학술지 디자인 및 레이아웃
- 5) 국내 최고 수준 학술지 제작 출판사에서 인쇄
- 6) 국제 최고 수준 누리집 제작 및 archiving
- 7)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창간호까지 소급
- 8) 영문 학술지로 전환 및 원어민에 의한 영문 교열
- 9) PubMed/PubMed Central 등재
- 10) 영향력지표(impact factor) 높이기: 최소 0.5 이상 가능하다면 1 이상
 -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 종설 초빙
 - 국내외 학자의 우수 원저 초빙
 - 학술지 인용을 높이도록 홍보
- 11) 색인데이터베이스에 편지 쓰기
- 12) 학술지 발전을 위한 학회 인력 확보: 편집위원 훈련

이렇게 하여 학술지 style 및 format이 국제 수준에 다다르면 내용도 국제 수준에 따라 간다. 즉,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